

2018 년 10 월 14 일 “복음의 여정(4) 의사이신 예수님과”(마 9:10-13)

육체적, 정신적 질병은 자신과 주변 사람이 고통받지만 영적 질병은 교묘해서 당장은 안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면 삶이 교착되거나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의사로 비유하시며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

[1] 바리새인과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동족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이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고 의사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일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제사와 같은 종교적 형식과 율법 준수에 대해 감탄할 정도로 잘 지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알 만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6:1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3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6: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 자비와 사랑, (히)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사람에게서 찾으십니다(유진 피터슨 메시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비와 사랑의 성품과 태도가 우선인데, 그들은 이것을 잊고 형식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마태는 인애 대신 긍휼(자비)을 사용했는데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줄이면, “너희들은 제사 종교를 잘 드리면 인생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 그게 아니고 헤세드(사랑과 자비)에 승부를 걸어야 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니까 제사를 언급하시지만, 직장인, 학자, 예술가, 양육자, 가정 주부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생이 결국 무엇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적 삶의 특징을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2] 죄인을 부르러 오심

죄인은, 병들었는데 스스로 고칠 수 없으므로 당신과 같은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본문에서 죄인은 영적 질병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보다 제사와 율법 준수를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더 끌리고,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큰 업적이 성취되며, 멋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취향의 영역에서 자기 의를 이루고 싶은 본성이 앞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은 종교가 자기 의의 동기가 되어 결국 자비와 긍휼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의인의 삶을 산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예수님 말씀에 끌렸습니다. 어차피 인생의 오점으로 종교적/사회적으로 성공하기 틀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회에서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삶에 자비와 사랑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서 더 큰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닥의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역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자비와 사랑을 배워가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터득합니다. 복음의 여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여정의 인생에는 전에는 열리지 않았던 영적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성품적, 관계적, 소망의 미래 측면에서 삶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 자기 의의 함정

본성적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세상 프리즘을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관심 영역에서 반드시 자기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여정의 적입니다. 이 이상은 되어야 하고 이 이하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장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만으로까지 번져갑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만족하면 사랑과 자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살면 된다고 믿게 됩니다. 나쁜 사람이서가 아닙니다. 예의, 능력, 외모 등의 많은 기준들이 핵심 신념이 되면 언어 표출 방식이 강해집니다. ~ 해야 해(must), ~하면 안 돼(must not) 라는 말입니다. 자기 주장이 세집니다. 사람의 언어는 자기 의의 한 척도입니다. 자신의 언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Must, should, 지시어, 판단의 말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자녀와 가족들에게 먼저 이것을 줄여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여정에서 무엇이 앞서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긍휼/사랑을 배우야 합니다. 어떤 기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과감히 내려놓고 사랑과 자비를 바닥부터 배우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면 주님 주시는 생명의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믿으면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극복하는 길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큰 사랑 안에서 그분처럼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나의 삶도 풀어지게 할 것입니다.

<맺음>

긍휼과 사랑을 배우는 죄인은 행복한 죄인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면 관계와 소명의 길 속에서 배우는 긍휼과 사랑의 삶이 아름다운 선물임을 보게 됩니다. 이 삶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바리새인에게서 보여지는 자기 의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2. 나를 자랑스럽게 또는 부끄럽게 만드는 자기 안에 설정된 기준이 있다면 살펴 보십시오.
(자신의 언어를 돌아보세요.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3. 주님께서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긍휼을 깨닫거나 체험한 적이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